

중견기업·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스타트업 협업 통해 동반자적 가치 추구에 나선 기업 행보 주목

어려운 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 실천 나서

최근 국내 유명 항공 기업들의 사익추구와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온갖 모욕과 비난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기쁨조를 방불케 하는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이른바 '갑의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그릇된 권위의식에 나온 갑질 파문에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개인의 그릇된 행동이 기업의 가치 하락을 이끌고, 나아가 임직원과 거래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까지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리게 했다.

반면 녹록치 않은 산업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함께 나아가야 모두 이긴다'라는 동반자적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최근 사회적 문제와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설립한 카페 종합 솔루션 기업 '흥국에프엔비'와 국내 자동차 협력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자랑하는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의 행보가 눈에 띈다.

두 기업 모두 탄탄한 내공을 기반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혁신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흥국에프엔비(189980)는 과일농축액, 스무디, 착즙주스를 비롯해 커피, 디저트 등 프리미엄 음식료 생산 및 유통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 개발에 집중하며 커피 및 디저트 사업 확대를 이뤄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과 상호협력을 통한 신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흥국에프엔비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 제공하고, 꾸준히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서로 윈윈하는 형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랩노쉬로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 '이그니스'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특유의 젊은 기획력과 감각이 새로운 트렌드에 접근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망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그니스 역시 흥국에프엔비의 축적된 노하우를 습득해 스타트업의 한계를 넘어 식품 시장을 개척하는 브랜드로서의 입지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차량용 시트 및 암레스트 등 자동차 내장재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공업(170030) 역시 사업 다각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대공업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중견기업 연합벤처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경남권 중견기업들과 산업은행이 신사업 발굴 및 창업 생태계 연결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투자 수익에 목적을 두기 보다 상호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갖춰 미래성장동력을 찾자는 현대공업의 의지와 일치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맞춰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을 접목해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한편,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대공업은 유망 스타트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신사업 진출에 유리해지고, 스타트업 기업 또한 경영 노하우를 비롯한 안정된 네트워크를 지원받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정서는 오히려 공공 열어붙어 가는 모습의 요즈음이다. 이러한 와중에 상생의 덕목을 가치 삼아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모습은 단연 인상적이다. 상생의 행복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축적된 인프라가 스타트업의 젊은 에너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산업 생태계를 그리는 모습이 기대되는 바다.